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24, 2019 Vol. 693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미주한인 기독실업인회 서부총회, 제1차 미주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 개최

미주한인 기독실업인회 서부총회가 개최한 제1차 미주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

미주 한인 기독실업인회(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 이하 CBMC) 서부총회(총회장 황선철)가 주최하는 제1차 미주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십'을 주제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주강사인 공병호 박사를 비롯해 가정사역자 김혜수 박사의 주제 특강, 최성진 교수의 경영특강, 박희민 목사의 주제 특강 등 다채로운 순서가 이어졌으며 게티센터,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투어 등 회원들의 친목 순서도 마련됐다.

서번트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전한 박희민 목사는 "탁월한 한 사람의 지도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창의적 접근과 시도로 비지니스 영역에서 섬기는 리더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선교 리더십을 발굴하는 리더들이 되길 바란다"며 "혼자의 힘은 약하고 제한적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협력할 때 큰 일을 해낼 수 있듯이, 미주 한인 CBMC 서부총회가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미국은 한인 1세대를 지나 2세대에서 3세대로 이어지는 차세대 신앙 전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며 "복음 전수와 세대교체의 시대에 우리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봉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이어 "현대 선교의 관점이 전통적인 장기 선교사로의 헌신에서 의료인, 엔지니어, 건축가, 기술자, 기업인, 교사 등 전문인 선교사들이 증가하고 특별히 은퇴 후 사역에 전념하는 실버 선교사, 자비량 목회자 평신도 선교사가 늘어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NAE, 한국계 월터 김 목사 새 대표로 선출

한국계 미국인인 월터 김(Walter Kim) 목사가 비백인 최초로 전미복음주의협회(NAE) 차기 대표로 선출됐다. 김 목사는 내년 1월부터 4만 5천개 교회를 이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NAE 이사회는 17일 모임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새 대표의 선출은 지난 2006년 이후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철학과 역사를 전공한 김 목사는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칼리지(Regent College)에서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대에서 박사(Ph.D.) 학위를 취득했고, 지난 2013년부터 NAE 이사로 활동해 왔다.

특히 CP는 김 목사가 비백인 중 처음으로 NAE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최근 수십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복음주의가 성장해 왔다"며 "NAE의 40개 교단들에 속한 교인들은 미국보다 그 밖의 나라들에 더 많이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음주의는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이민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며 "NAE 역시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대표로 선출된 김 목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NAE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NAE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이 단체를 이끌게 되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단체인 NAE는 40개 교단을 비롯해 여러 조직과 학교 등의 연합체로 지난 1942년 설립됐다. 현재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만5천여 개 교회가 속해 있다.

김진영 기자

다음 주는 정기휴간입니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 11월 1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2월 15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얼바인침례교회 '회복' 주제 창립 45주년 감사 부흥성회 개최

얼바인침례교회 창립 45주년 감사 부흥성회에서 설교하는 박광철 목사

얼바인침례교회는 창립 45주년을 맞아 박광철 목사를 강사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감사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박광철 목사는 '사랑을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란 제목으로 성회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을 주문했다.

박 목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녀들과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기도를 드리셨다"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얼바인침례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또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게 됨을 기억하라"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믿음, 사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극심한 내분을 겪었던 얼바인침례교회는 지난 8월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예배와 교회 행정 등 교회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얼바인 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선교사, 목회자 자녀 장학 기금 마련 자선 골프대회

뉴 커버넌트 아카데미(New Covenant Academy)는 오는 11월 2일(토) 오후 12시30분, 웨스트릿지 골프 클럽(Westridge Golf Club 1400 S La Habra Hills Dr, La Habra, CA 90631)에서 제8회 선교사, 목회자 자녀 장학 기금 마련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문의 213)487-5437

[1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어]

미주한인 기독실업인회 서부총회, 제1차 미주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 주강사로 나서 강의하는 공병호 박사

미주 한인 CBMC 서부총회 황선철 회장은 이번 1차 대회를 시작으로 미주와 한국, 더 나아가 글로벌 CBMC와 공동 협력하며,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을 통해 전 비지니스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어 "미 서부 지역은 미주 한인 동포 중 150만 동포의 거주지며 비지니스와 교회가 최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1975년 미주 한인들이 최초로 CBMC를 출범한 곳"이라며 "CBMC 서부 지역의 부흥을 통해서 성경적 경영을 추구하며 일터 현장에서 사역의 활성화, 지회 확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황선철 회장은 "CBMC 서부 총회는 실업인과 전문인을 전도하고 양육해, 영적 재생산자로 세우며, 성경적 리더십을 개발해 영적 비지니스 리더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일터 현장에서 성경적 경영을 적용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오레곤, 시애틀, 하와이 등 미 서부지역에서 15개 CBMC 지회를 비롯해 남미 칠레,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250여 명이 참가했으며, 2차 대회는 2년 뒤인 202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내년 봄에는 하와이에서, 가을에는 시애틀에서 리더십 트레이닝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주 한인 CBMC 서부총회는 "미국의 지리적 광대성과 미국의 서부와 동비 지역의 한인 동포의 편중 거주 심화현상에 따른 CBMC의 사역의 제한, 사역 활동의 지역적 한계 및 집중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역 효율성을 위해 올해 1월 25일 창립하게 됐다"며 "CBMC의 정체성을 재확립하여 사명을 실천하고 비전을 공유하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복음 전파 지상명령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뿔라(Beulah) 공동체를 방문한 이상훈 목사(왼쪽) 관련기사 4면 '이상훈 목사의 선교칼럼'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I-20 자격신청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9 밀알의밤
「지누션」의 션 SEAN 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11.1 @7:30pm ANC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 Lake View Terrace CA 91342
11.2 @7:00pm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11.3 @7:00pm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행사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87,000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별후원] FOREVER 21 ACE ENGINEERING, INC. JamesWorldwide
예매처: 핫딜 hotdeal 중앙티켓센터 http://hotdeal.koreadaily.com 213-368-9828 / 213-784-4628
두란노서원 213-382-5400 울타리서적 310-325-9191
복음사 562-865-4949 / 알라딘서점(올림픽점 213-739-8107, 풀러튼점 714-523-7060, 가든그로브점 714-530-8484)
도르가기독교백화점 714-636-7430 / ANC온누리교회 서점 818-834-7000 / 남가주사랑의교회 서점 714-780-1111
Ticket Donation: $15
티켓구입 및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www.MilalMission.com
562. 229. 0001
2020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수혜대상:
장학생, 근로복지생, 꿈나무장학생
자 격:
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근로복지생: 0명
(미주밀알선교단 각 브랜치에서 봉사하는장애인 중 선발)
꿈나무장학생: 00명
장학금액:
장애인장학생 및 근로복지생: 1인당 $3,600
(매월 $300/1년간 지급)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 (일시불)
신청마감:
2019년 11월 30일(금) / 발표: 추후 개별통보
신 청 처:
smilal@milalmission.com
제출서류:
장애인장학생, 꿈나무장학생, 근로복지생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니 장학금 신청서에 있는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 홈페이지 (www.milalmission.com)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북한 동족과 복음 통일 위해 눈물로 기도하자”

오는 11월 10일(주일)
기쁜우리교회에서
LA 통곡기도회 개최

LA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

“지금 이 시간이 북한동포와 탈북자와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할 때입니다. 오랜 세월 고통과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원받고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께 통곡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까지 선교연합(대표 손인식 목사 UTD-KCC 선교회)과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공동주최하고 기독일보와 미주 CGNTV가 후원하는 ‘2019 LA 통곡기도회’가 오는 11월 10일(주일) 오후 4시, 글렌데일 소재 기쁜우리교회에서 열린다.

통곡기도회는 15년 전 미주 한인교회 중심으로 남가주에서 시작되어 매년 북한 주민들의 구원과 복음통일, 북한 인권 확립과 전도, 신앙의 자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신앙인들의 석방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또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진행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 정치계에도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

올해 LA 통곡기도회를 준비하는 김경진 목사는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지구촌 시대에도 북녘의 우리 동포들은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하고, 특별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북한 땅까지 전해지도록 다함께 모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그날까지 선교연합 손인식 목사는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도 죽어가는 북한의 동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라며 “기도가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LA 지역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엎드려,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기회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와 통곡의 기도로 나아가자”고 전했다.

손인식 목사는 또 “1982년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열린 평화의 기도회가 통일의 시발점이 되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듯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통곡하며 기도로 통일을 외칠 때 한민족의 복음통일 또한 이뤄질 것”이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LA 통곡기도대회에서는 전 북한 공훈 무용배우 김영순 대표가 참석해 구원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북한의 실상과 자신이 경험한 생생한 탈북 스토리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L.A Chamber Choir(지휘자 이정욱)가 특별 찬양을 전하게 된다.

한편 김영순 대표는 평양 종합예술대학에서 ‘한국 춤’의 대가 최승희 선생에게 춤을 배워 평양 협주단 무용수로 활동했다. 영문도 모른 채 가족과 함께 1970년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 9년 동안 수용소에서 중노동과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영양실조로 수용소에서 부모님과 큰 아들을 잃었고, 막내아들은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총살당했다. 그 후 김영순 대표는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결심으로 2002년 중국으로 탈북해 5개월 간 사투 끝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를 거쳐 2003년 한국에 들어왔다.

문의 818) 662-0400 기쁜우리교회

김동욱 기자

공적부조 개정안 우려, 시민권 신청자에겐 적용 안돼

10월 26일(토) 민족학교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숍

민족학교는 오는 2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족학교의 킹슬리 사무실에서 진행될 이 행사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은 물론 시민권 취득 절차 안내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이어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9개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2년 9개월)이 지났어야 하며, 최근 5년간 2년 6개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실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민족학교는 가장 최근 발표된 미 이민국의 201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한인 영주권자 19만 명 중 7.7%에 지나지 않는 14,600명가량 정도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열 명 중 아홉 명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민족학교는 또 “현재 많은 이민자들이 공적 부조 개정안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공적 부조는 아주 극소수의 이민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며 많은 이민자들 특히 대부분의 영주권자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며 “시민권 신청을 할 때 공적 부담 심사를 하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 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정부 혜택을 받아도 된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들이 본인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민족학교는 “2017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는 총 14,643명이며, 이중에 캘리포니아 한인 거주자는 총 5,057명으로 같은 해에 총 3,350명이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상담을 받았고, 이 중에 880명이 시민권 신청했다”며 “내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맞아 시민권 취득은 한인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10월 26일 시민권 신청 워크숍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민족학교에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 예약과 동시에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연결이 안 될 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된다.

▶킹슬리 민족학교 시민권 신청 워크샵
일시: 2019년 10월 26일(토)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민족학교 킹슬리 사무실
540 S Kingsley Drive,
Los Angeles, CA 90020
문의: 323-205-4187
웹사이트: www.krcla.org

정은진 기자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32

"뿔라(Beulah) 공동체와 의의 나무 사역(2)"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필자가 뿔라 공동체 사역을 참여하면서 받은 감동 중 가장 큰 도전은 그 사역의 뿌리가 되는 비전이 "의의 나무 사역"에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모두 의의 나무 비전과 이어져 있다. 의의 나무는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에 세우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의 나무라 한 구절에서 나온 표현이다. 뿔라공동체는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신 먼저 된 의의 나무들이 현지인 의의 나무들을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사역이다.

약 9개월 전 부임한 이주혁 선교사, 조지혜 선교사 그리고 두 아들 예찬이 은찬이 이 사역자들이 뿔라 공동체를 담당하면서 약 6년여간 개척자들이 심어 놓은 영적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했다. 공동체 캠프는 근방의 푼따 꼴리넷이라는 산간 마을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동체를 개척한 이준 선교사의 헌신을 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120 에이커의 산 부지를 기적으로 매입하여 그 땅을 직접 개간하면서 선교 제1관, 선교 제2관을 건축하여 사역의 터전을 잡았다. 다음 후임 동역자에게 맡기고 이 선교사는 브라질 빈민가로 사역지를 옮겼다. 그 지역의 사역 이야기도 다음 기회에 꼭 나누겠다.

후임 선교사는 삼 년여간 동안 의의 나무 양육에 집중하였다. 그 열매가 지금의 현지인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뿔라공동체의 담당자로 이 선교사 가정이 왔다. 필자가 본 두 부부는 한 분은 비전메이커이고 한분은 양육 전문가이다. 만능 운동선수인 두 아들은 초등학교와 유스의 리더가 될 만큼 영육 간에 훈련이 잘되어진 자녀들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꼴리넷 초등학교와 교육 네트워크를 맺었다. 열악한 시골 마을 학교라 교사도 교실도 턱 없이 부족하여 자녀들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졌다.

이 선교사 가정은 엘에이 본부에서 지원받은 약 30인용 중형버스를 이용하여 아침에는 그 학교 앞에서 오후반에 갈 아이들 중에 결손가정 중심의 자녀들을 30여 명 태워 공동체로 온다.

선교관은 훌륭한 학교 시설을 갖추었다. 현직 교사 출신의 발런티어 동역자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히고 점심식사까지 먹이고 1시까지 학교로 다시 간다. 그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가면 이제 오전반을 마친 아이들 중 30명 자녀들을 태우고 공동체로 다시 와서 점심을 먼저 먹이고 오전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그 아이들을 지도한다.

뿔라공동체에 오는 그 아이들의 부모나 보호자는 모두 근처 농장 등으로 일을 나간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한다. 그 시간을 학교와 뿔라 공동체가 아이들을 맡아 보호하고 가르치니 그 마을 주민들에게 뿔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주혁 선교사가 운전하는 공동체 차량이 나타나면 모든 주민이 손을 흔들어 인사한다. 아이들이 몰린다. 뿔라에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많은 데 현재 수용 시설과 재정형편이 하루 60명 정도의 아이들을 담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태라 선교사님들은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만 보일 뿐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두 부부는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을 한다. 자녀들 애프터스쿨 사역인 "하나님의 은총 사역"이 다 마쳐지면 오후 4시 30분쯤 다시 차량이 마을로 간다. 그때는 미리 준비한 위문품들을 가지고 산간 변두리 지역에 정말 열악하게 사는 빈민가정들을 찾아 현지인 발런티어 스태프들과 심방팀을 꾸려 날마다 6 가정씩 100 가정 이상의 가정들을 돌보는 심방 예배 사역을 한다.(계속)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4) 칭찬

칭찬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호올 케인이라는 사람은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작가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저택은 관광객들의 성지가 되고 그의 재산은 반세기 전 250만 불이나 될 만큼 성공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남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그의 성품에 기인했다고 알려집니다. 그의 칭찬은 그의 습관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었답니다. 그는 칭찬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이나 아는 사람을 틈만 나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가진 호올 케인은 아는 사람들을 늘 칭찬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유명한 영국의 시인 로세티를 좋아하고 그의 예술적 공적을 칭찬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논문을 복사해서 로세티에게 보낸 것이 발단이 되어 그의 비서로 등용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크게 출세했다고 알려집니다.

칭찬하는 삶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도약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여 주는 실례입니다. 이재명 목사의 '칭찬 한 마디의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딸이 말썽을 부려서 고민하는 아버지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담 소장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아버지에게 숙제를 하나 주더랍니다. 아버지에게 주는 숙제란 '다음에 오실 때는 딸에 대해 칭찬할 것 20가지를 적어오세요!'였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상담소를 찾았는데 시시한 숙제를 내어 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여기저기에서 하소연을 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친구의 조언은 '작은 것 하나부터 칭찬할 것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아버지는 딸에 대한 칭찬거리 20가지를 적어서 상담 소장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소에서는 그 딸에 대한 칭찬거리 20가지를 적어서 상담 소장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소에서는 그 딸에게 직접 보여주라고 하더랍니다. 그것을 딸에게 보여 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루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딸과 약속을 합니다. 저녁에 제과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새로운 일을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딸은 하루 종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녁에 만났는데, 아버지가 말은 못 하고 주머니에서 종이쪽지를 꺼내 들고는 "딸! 지금부터 아빠가 읽는 것을 잘 들어라!" 하면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다 읽고 난 아버지는 겸연쩍고 민망해서 "내가 계산하고 먼저 간다!"고 말하고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항상 야단만 맞은 딸은 아빠의 칭찬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쫓아가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아빠가 기뻐하는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빠도 이런 딸의 반응에 감동받아 흥분합니다. 결국 딸은 아빠의 칭찬에 힘입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칭찬이 중요하지만 칭찬을 방법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칭찬의 방법이나 칭찬의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칭찬의 노하우들을 간추려 정리합니다.

1. **수시로 즉시 칭찬하십시오.** 칭찬을 미루지 마세요.
2.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소유가 아닌 재능을 칭찬하세요. "넥타이가 참 멋있어요?"라는 말보다 "감각이 탁월하시네요!"라고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타고난 재능보다도 의지를 칭찬하세요.**
4.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세요.** "1등을 했다면서요?"보다 "우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겠군요!"가 더 좋습니다.
5. **진실함으로 칭찬하십시오.** 마음이 없는 칭찬은 힘이 없습니다.
6. **애매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막연히 "참 좋은 데요"보다 "넥타이 참 잘 매시는 것 같아요! 가 좋습니다.
7. **사적으로 보다 공개적으로 칭찬하세요.** 칭찬의 증인을 남겨서 칭찬이 유통되고 공인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없을 때 남긴 칭찬은 그 호응 가치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8. **말로만 칭찬하지 말고 보상과 더불어 칭찬하면 더 큰 힘이 있답니다.**
9. **난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세요!** 위기에서 듣는 칭찬은 큰 힘이 있습니다.
10. **남을 칭찬해야 하지만 가끔 자기 자신을 칭찬하세요.** 당신이 칭찬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가족을 대하는 마음... 치과 편안하게 오세요”

[인터뷰]캘리포니아 웨이브 덴탈 센터 안영준 원장

캘리포니아 웨이브 덴탈 센터 의료진 오른쪽 부터 안영준 원장, 김혜경 한의사, 이승희 치과의사, 카든 알사마라 치과의사

“치과를 개원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긴 진료 철학이 ‘직원과 환자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먼저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묻는데요.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아프세요’라고 먼저 물을 수 있는 병원이 되려고 합니다.”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는 캘리포니아 웨이브 덴탈 센터 안영준 원장은 환자의 편안함과 최상의 치료 결과를 위해 환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려 노력하고 있다.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치료와 최선의 만족’이라는 목표는 병원의 수준을 오늘까지 끌어올리는 동력이 됐다.

치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상장이 그간의 노력을 대변하는 듯하다

환자가 믿을 수 있는 치과

캘리포니아 웨이브 덴탈 센터는 여간해서는 환자들에게 치아를 뽑으라고 가볍게 권유하지 않는다. 환자의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고 발치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둔 시술을 고집한다. 쉬운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100세까지 사는 분들에 혹은 당장 간편하다고 해서 치아를 너무 쉽게 뽑아서는 안됩니다. 치과 진료는 단기적 효과를 위한 치료가 아니라, 환자가 장기적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진료가 되어야 합니다. 후배들에게도 항상 눈앞의 이익보다 먼저는 환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본분은 환자의 환부를 치료하고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원장은 직원들이 인정할 정도로 고집스럽게 재료를 엄선하기로 유명하다. 환자의 입장에서 저렴한 재료와 치료법에 마음이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구성과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오랜 시간 직접 임상을 통해 증명된 치료법과 재료를 환자들에게 추천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환자의 입장에서 최상의 치료방법과 진료를 권해드립니다. 크라운을 보면 많은 경우 자기 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28개를 얼마나 오랫동안 잘 보존하느냐는 그 사람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치아 건강이 신체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다”고 강조한다.

안 원장은 “치료하고 보존해 사용할 수 있는 치아를 뽑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며 “후배 치과 의사들에게도 환자들의 치아를 함부로 뽑지 말라”고 조언한다.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발판이 됐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세상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삶이란 사실도 그때 얻었다. 그렇기에 환자들뿐 아니라 병원 직원들은 그와 삶을 나누는 인생 동반자다.

환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고스란히 직원들에게도 전해졌다. 10년 이상 근속 직원들이 많은 이유도 환자를 대하는 안원장을 곁에서 보면서 안 원장의 사람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그렇게 한번 맺은 인연은 쉽게 놓지 않는다.

현재 3개 지점을 갖추고 있는 캘리포니아 웨이브 덴탈 센터는 캘리포니아 주를 남북으로 잇는 I-5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10개까지 설립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점 확장은 이사 간 근속 직원들과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의 경우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는 20년 이상 문제가 없도록 진료합니다. 양질의 크라운을 사용하고 치아를 잘 관리한다면 40년도 사용합니다.”

한번 맺은 인연의 소중함 환자와 직원은 삶의 동반자

청소년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안 원장의 삶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과 온갖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며 인생을 배웠다. 그러한 연단의 시간은 삶이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치과

오랫동안 무료 진료소에서 다민족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해온 안 원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믿음직한 이웃 같은 치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람들을 돌보고 고통을 치료하는 캘리포니아 웨이브 덴탈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우리 치과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만큼 커뮤니티와 이웃을 위한 일에 쓰임 받고자 한다”며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인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치과로 자리 잡은 캘리포니아 웨이브 덴탈 센터는 앞으로도 온 가족이 모두 믿고 치과 치료를 맡길 수 있는 가족 주치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욱 기자

California Wave Dental Center
전화 818-988-9959
홈페이지 www.wavedentist.com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www.cmmlogos.org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뉴저지 주에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도 의료보험 의무화와 미가입 벌금 제도가 재시행됩니다.
의료비 대책과 벌금 면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CMM 기독의료상조회에 문의하세요!

기독의료상조회는?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1996년부터 24년간 미 전 지역의 한인 크리스천들이 참여
- 월 $175로 의사방문, 검사, 입원, 수술은 물론 건강검진까지 지원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프로그램 1년에 $500)
- 2년 이상 가입 회원사망 시, 최대 $17,500까지 장례비 지원
-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 80	$ 40
2인	$325	$260	$160	$ 80
3인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 / Year	$500 / Incident	$1,000 / Incident	$5,000 / 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임신/출산 건강검진($500/1년)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입원, 수술	입원, 수술

*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보험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입니다.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wned by Logos Missions, Inc.
899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사라 ☎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Phone:773-777-8889 (Headquarters)
714-333-7487 (CA 지부)
Email: ca@cmmlogos.org

※ 홈페이지 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령의 구원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6:1-1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갈라디아서 5:22-23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에 사로잡혀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 말, 행동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연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며,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아'하는 호칭은 성령받아 구원얻은 성도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성령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 악령의 앞잡이,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받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교인이 죄를 지었을 때 성도상호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16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악령에 사로잡혀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권면하거나 기도해주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며 하나님도 이것은 이미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한 일을 달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훼방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횡포로 죄를 짓는 것은 고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헬라어로 '파랍토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획이나 생각 없이 무의식중에 실수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만일 이러한 범죄를 보았을 땐 그가 심판 받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위축되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가 없는지 넓은 안목으로 두루 살피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은혜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분석, 비판해서 혹여 망각하고 있거나, 실수로 타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피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 살펴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회개와 경고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교회생활을 통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은 헬라어로 '바레'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거운 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직분과 직책을 받아 그 은혜 보답을 위해 애는 쓰지만 형편과 사정 때문에 힘에 겨워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그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분발해서 신령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행보로 천국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9:17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3절)"는 말씀은 누가 상당히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혼자서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와줄 생각은 고사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심판의 자세를 취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8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소망도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사랑실천의 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좋아하고 자랑하면서 그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회개와 각성, 분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랜 세월 회개하기 전에 마귀와 살면서 그 죄악 근성이 의식화됨에 따라 죄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둔감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크게 뉘우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소망이 기대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2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셨는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는 짐을 말합니다. 이것은 각자가 지고 다니는 것으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3-4에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시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노력하여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타인에게 부담 지워 힘들게 하고 자기는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짐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덕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1-5의 내용이 신자가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면 갈라디아서 6:6-10은 성령받은 사람이 천국을 목표로 살아갈 때 자기 육신에 따르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살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선 그 교회에 세움받은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붙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한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34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았더니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7절의 말씀은 죄 짓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죄악의 형벌을 거두며, 영적인 성과와 소망을 위해 사용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성과로 역사하는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얻어지고 살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위해 투자한 것은 구령의 성과로 보장될 것이고 육체의 썩어질 정욕이나 다른 허욕을 위해 잘못 사용하면 그 결과는 허무와 후회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갈6:9)고 하십니다. 그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 성품, 그리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인격의 자세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속한 기관과 교구, 구역, 전도회 등을 통해 사람들을 살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물질 관리자의 자세를 가지고 힘써 행하며 살아가야하는 교훈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4시30분/동부 오후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증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투브 (복음 채널) 방송선교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COLUMBUS DAY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 격**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4. 자기 소개서
5. 최근 설교 CD
6. 추천서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재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383-3566

월드미션대학교 모래 놀이 치료 워크숍 개최

부에나 팍에 위치한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성진 박사) 상담대학원은 오는 28일(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모래 놀이 치료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은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뿐 아니라 상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래 놀이 치료에 대한 소개와 모래 놀이 치료 도구를 사용한 시연과 실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워크숍 강사로 나서는 송경화 교수는 "모래 놀이 치료는 전 연령층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특히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심리치료 방법으로, 모래 상자에 다양한 소품들을 사용해 자신의 무의식을 투사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을 표출하고 전체적으로 자기를 통합해 가도록 돕는 치료법"이라며 "모래놀이 치료는 청소년 이외에도 언어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한인기독교상담소는 모래 놀이 치료를 위해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모래 상자와 다양한 소품들을 구비해, 모래 놀이 치료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있다.

워크숍 참석은 전화로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회비는 20달러다.

한편 월드미션 대학교 상담대학원은 LA와 OC 두 곳의 캠퍼스에서 상담학 석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상담실습과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훈련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부설 상담소에서는 지역 한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은진 기자

문의 213-388-1000
주소 : OC 상담대학원
7342 Orangethorpe Ave. # A-103, Buena Park, CA 90621

오픈뱅크 "사랑과 나눔 실천합니다"

오픈청지기재단 10월 16일부터 비영리단체 지원 신청 접수 시작

수익의 10% 사회환원 프로그램

지난해 북가주에 이어 올해는 텍사스주에서도 지원단체 접수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사회에 새로운 사회환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도 나눔 실천에 나선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지원 프로그램이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그동안 남가주 지역에서 시행이 되었고 지난해에는 오픈뱅크 산타클라라지점 오픈에 따라 북가주지역까지 확대되어 시행이 되었는데 특히 올해는 오픈뱅크가 텍사스주에 진출함에 따라 캐롤턴지점을 통해 텍사스주에서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이 시행이 돼 텍사스주의 비영리단체들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오는 11월22일까지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 뒤 독립적인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말에 지원 프로그램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올해도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단체가 아닌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행하게 된다.

서류 심사에서는 재단측이 요구하는 서류가 정확히 제출이 되었는지를 우선 검사하게 되며 이어 현장방문을 통해서는 지원 프로그램이 얼마나 커뮤니티와 연관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 지를 체크하게 되며 더 필요한 점이 있는 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지 여부를 재단에서 직접 체크를 하게 된다. 지원금 전달은 내년 3월말에 실시할 계획이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신청서에는 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 방법, 그리고 신청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신청서는 오픈뱅크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오픈청지기재단 웹사이트(www.openstewardship.com) 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문의 : 213-593-4885

뉴욕교협 정기총회 개최…신임회장 양민석 목사 선출

신임회장 양민석 목사

뉴욕교협 신구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좌측부터 직전회장 정순원 목사, 신임회장 양민석 목사, 신임평신도부회장 손성대 장로, 감사 김영철 목사, 평신도감사 김주열 장로, 감사 김기호 목사

공석인 목사부회장은 추후 임시총회 열고 선출하기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45회 정기총회가 21일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잇넥교회)가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됐다.

입부호자의 중도 사의로 후보가 없었던 목사부회장은 신임회장 및 임실행위원 취임식 3개월 내 임시총회를 열어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신도부회장은 전 교협 이사장이었던 손성대 장로가 투표 과정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됐다.

평신도감사는 전 교협 평신도부회장인 김주열 장로가 선출됐으며 입후보자가 없었던 목사감사는김영철 목사와 김기호 목사가 한 회기 더 연임하기로 했다.

양민석 목사는 당선소감을 통해 "부족한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함께 협력해 가는 교협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 45회기 총수입은 33만8141불이며 총지출은 33만3727불로 잔액은 4414달러로 보고됐다. 신입회원으로는 물댄동산교회(담임 정숙자 목사)와 뉴욕은혜교회(담임 전인숙 목사) 2개 교회가 가입했다.

김대원 기자

KBS 뉴스 9, 목회자 세금 납부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은퇴 사례 지적

전별금 안 받겠다 선언? 거액의 혜택 제공받아

해당 뉴스 장면. ⓒKBS 캡처

교회 측 "소망교회, 대기업이나 마찬가지" 해명
사례비 60%가 730만원? 재직시엔 1,200만원
김 목사 전별금 한꺼번에 받기 꺼려, 세금 때문

KBS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에서 KBS 뉴스 9에 대해 '기독교가 무서워 교회를 공격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22일 발표한 가운데, KBS의 해당 보도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KBS 뉴스 9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막 12:17)' 성경구절을 언급하면서 "목회자들의 세금 납부는 법적 의무가 됐는데, 실제로 그럴까"라며 이후 소망교회에서 16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올해 1월 퇴임한 김지철 목사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김지철 목사는 퇴임 당시 소위 '전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일부에서 '조용한 은퇴', '착한 은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KBS 취재진이 국내 대표적 대형교회인 소망교회 관계자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소망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 결과, 교회로부터 거액의 직·간접적 금전 지원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KBS 취재 결과, 소망교회 당회는 김지철 목사 은퇴 전인 지난해 10월, 김 목사에게 재직기간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약 730만원을 매달 10년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면 대기업이나 마찬가지", "담임목사 연봉은 1억 5천만 원 가량", "그 돈을 자녀교육에 거의 소진하니까, 은행에 돈이 남아있거나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질 형편이 못 된다", "은퇴했다고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등이라고 해명했다.

KBS 측은 "중요한 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상황에서, 사실상 수십억 원 가량의 퇴직금 혜택을 받은 김지철 목사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김 목사는 취재진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소망교회 측에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목회자 은퇴 후 생계 문제에 대한 김 목사와 교회 측의 해명 역시, 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 정서와도 상당히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최대 규모 교회 중 한 곳인 소망교회에서 16년간 재직한 담임목사가 노후를 걱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특히 사례비의 60% 정도를 은퇴 후 매달 지급받는데 해당 금액이 730만여원임을 감안하면, 그의 담임 재직시 사례비는 매달 1,200만여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에 해당한다. 이 정도 규모의 사례비에도 노후대책이 없었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라는 반응도 있다.

사실 이러한 김지철 목사의 결정은 지난해 10월 당시 모두 알려진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뉴스앤조이 등 교계 일부 언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칭송'했다. 그러나 당시 '칭송' 기사 내용을 보면, 사례비 60% 10년간 지원, 사택 계속 대여 사용, 사무실 5년간 지원 등 현재 KBS가 21일 지적한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김지철 목사의 사택과 사무실에 대한 KBS 보도 화면. ⓒKBS 캡처

또 김 목사가 17억여원 상당의 서울 광장동 사택을 그대로 사용하고, 교회가 매입한 8억 5천만여원의 성수동 사무실을 제공받고, 매달 65만원의 차량 렌트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KBS는 "김 목사가 전별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았을 뿐, 교회로부터 사실상 전별금과 다름 없는 거액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었다 "며 "김 목사가 이처럼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우회적 금전 지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익명을 요구한 교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지난해 10월 당회 직전 '담임목사 은퇴준비위원장'인 한 장로가 "김지철 목사가 세금 문제 때문에 전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연금 형식으로 나눠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교회 관계자는 KBS의 질의에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했는데 왜 생활비를 주느냐고 지적할 수 있지만, 목회자들은 다른 재테크가 없으니 일반 직장인들과 차이가 있다", "소망교회의 사회적 위치를 보

원장은 전주 한일장신대 교수 출신의 박영호 목사(포항제일교회)다. 연구원에는 김지철 목사가 소망교회 이전에 재직했던 장신대 교수들을 비롯해 김 목사 주변 인맥들이 대거 포진, 향후 싱크탱크 또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연구원 등이 교단 또는 한국교회 내 하나의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대웅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EM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중보기도(목) 오후 1:00
금요찬양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 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87가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EM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오전 6:0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치부,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회 오후 8:00 /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 청년대학부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 유초등부 오전11:00 /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 목요집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전 11:00 / EM(Holy Wave) 오전 10: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 대학청년부 오후 2:00 /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 (토)
우영화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전 11:45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 영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 수요예배 오후 8:00 /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0:45 /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3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 수요기도 오후 7:30 /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 汉语查经班 : 周二 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 오전 11:00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 매일QT 월~금 오전 6: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후 1:00 /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 수요예배 오후 7:30 /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 주일 2부 오전 9:00 / 주일 3부 오전 11:00 (Blended Service) /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 EM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후 12:30 /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유년부 오전 11:00 /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 금요찬양예 배 오후 8:00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 주일 2부 오전 9:30 / 주일 3부 오전 11:30 /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30 /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 EM예배 (2부)오전 11:00 /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T. (818)363-5887
MP채플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00 /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40 / 3부예배 오전 11:30 /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청년 기독교인들, 비신앙인 또래들보다 우울증 덜 경험"

젊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또래들보다 분노나 우울증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새로운 보고서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바나(Barna)연구소는 최근 월드비전과 협력하여 25개 국가의 18세부터 35세 청년 15,369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분노를 경험한 응답자의 수는 매주 교회예배에 참석하는 이들(22%)이 그렇지 않은 이들(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 청년 중 절반 이상(51%)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답했고, 신앙이 없는 이들 중에는 34%가 그렇다고 답했다.

신앙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응답자의 28%가 '가끔 슬픔과 우울함을 느낀다'고 답했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 청년의 경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18%였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1%와 16%였다.

신앙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응답자의 29%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의 경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43%였다.

신앙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응답자의 51%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낀다'고 답했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의 경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였다.

시간과 돈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차이를 드러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 청년들은 신앙이 없는 청년들보다 봉사활동(각각 39%, 23%)이나 기부활동(각각 23%, 17%)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그룹의 데이비드 킨나만(David Kinnaman) 회장은 "이번 연구는 젊은 세대들 앞에 놓인 기회들에 관한 많은 희망적인 신호들을 보여줄 뿐 아니라, 신앙생활과 전반적인 삶의 건강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 팀은 기독교와 다른 신앙에 헌신된 이들부터 종교를 과거 시대의 유물로 여기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적 스펙트럼을 가진 10대들, 젊은 성인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듣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 가운데 핵심적인 멘토링과 우정 등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다. 최소한 종교가 외로움을 이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국 월드비전 팀 필킹턴(Tim Pilkington) CEO는 "우리는 18~35세의 청년들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와 그들이 무엇을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고자 했다"면서 "이번 보고서의 많은 요소들이 조명되고 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지역교회는 리더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자 진실된 희망의 원천'이라는 확신으로 많은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영국에 첫 지점 연 칙필레, 친 동성애 시위로 철수키로

칙필레 매장 로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칙필레'(Chick-fil-A)가 LGBT 단체들의 불만으로 영국의 첫번째 지점 문을 닫기로 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칙필레는 지난 10월 10일 영국 리딩(Reading)의 오라클(The Oracle) 쇼핑센터에 처음으로 지점을 냈었다. 그러나 이 센터의 대변인은 "6개월의 파일럿 기간이 더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라클 쇼핑센터 앞에서 정기적인 시위를 벌여온 동성애 옹호단체 '리딩 프라이드'(Reading Pride)는 "칙필레가 떠나기까지 계속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칙필레는 지난 1967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처음 문을 열었다. 남침례교인이었던 S. 트루엣 캐시(S. Truett Cathy)가 설립한 이 레스토랑은 특히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칙필레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고.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확고해 동성애자들의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뉴욕시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릴 당시 맨하탄의 칙필레 매장이 파손되기도 했으며, 지난 2016년 빌데블라시오 뉴욕시 회장은 뉴욕 시민들에게 칙필레 불매운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영국인 급증”

“특별 서비스 제공도 함께 늘어”

영국 구세군에서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반영구 문신. 현대판 노예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구세군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현대판 노예제도에서 구조 받은 후, 지원이 필요한 영국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영국 구세군 보고서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 영국인들의 수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구세군의 특별 지원을 받는 5번째 국가이다.

‘노예 반대의 날’인 10월 18일 전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영국 구세군은 지난 12개월 간 136명의 영국인들에게 안전한 집과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99개국 2,251명의 사람들이 구세군에서 특별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보다 1,856명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1,247명이 여성이었으며, 20%가 임신 중이거나 임신 예정이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 노동에 시달린 영국인의 수는 96명이었고, 이들은 농장일 또는 마약을 판매하는 일을 했다. 이 가운데 30명은 성적 학대를 받았고, 9명은 집안의 노예처럼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구세군은 마약 거래상들이 아동들을 이용해 지방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이른바 ‘카운티 라인스’(County Lines)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구세군은 “‘커쿠잉’(cuckooing)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 이는 마약 거래상이 취약 계층의 집에 거주하며 집주인들에게 강제적인 노동을 시키고, 그 집을 마약 거래의 거점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구세군은 노예 반대의 날을 맞아 온라인 매장에서 노예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비영구 문신도 판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구세군은 “이 문신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노예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北 교인들, 종교탄압·식량난 이중고…지원 절실”

미국 오픈도어즈, 모금 활동 적극 나서

북중 국경 지역의 철조망 모습. ⓒ한국오픈도어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즈가 종교탄압과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내 지하 기독교인들을 위한 모금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오픈도어즈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긴급한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 기독교인들이 북한 당국의 참혹한 종교탄압에 극심한 식량난이 겹쳐 일반 주민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을 우려한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금 모금에 적극 나섰다.

오픈도어즈는 앞서 홈페이지에서도 “올해 유엔이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천만 명의 주민들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며 “특히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고통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오픈도어즈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북한 내 지하 기독교인들의 성경공부를 지원하며, 기독교인 탈북민들을 위한 은신처, 식량과 의류 등을 포함한 겨울용 긴급구호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국 오픈도어즈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서 북한 기독교인들의 인권 신장 및 인도적 지원, 재정적 후원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 행사인 ‘머스카슬론’ 대회를 열기도 했다.

북한은 오픈도어즈가 매년 발표하는 박해국가순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노동교화소로 끌려간다. 이곳에서는 수감자의 75%가 사망하며, 북한 기독교인들은 처참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당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거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 : 45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0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c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유아,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 CA92886
T.(714)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홍콩서 대규모 시위… "전쟁과 다를 바 없다"

반중시위대와 친중세력 간 충돌

불에 타고 있는 홍콩의 샤오미 매장. ⓒSCMP 보도화면 캡쳐

홍콩에서 20일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중국계 은행 및 식당을 공격하며 격한 모습을 보였으며, 반송환법 시위 20주째 들어선 홍콩은 사실 상 전쟁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친중국 세력의 '백섹테러'가 이어지면서 시위대는 샤모이 등 중국 업체 매장에 집중적으로 방화하는 등 친중세력과 반중세력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 16일 밤 민간인권전선의 지미 샴 대표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 4명에게 쇠망치 공격을 당해 중상을 입은 데 이어 20일에는 '레넌 벽' 앞에서 집회의 참가를 독려하는 전단을 돌리던 시민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고도 한다.

레넌 벽은 포스트잇 등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장소로, 인파가 많이 오가는 곳마다 설치돼 있다고.

홍콩 시위대는 백색테러의 배후에 친중파 진영이 있다고 보고 중국계 은행, 점포, 식당 등을 집중 공격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 진압에 나섰다.

이날 시위로 몽콕역과 야우마테이역, 오스틴역, 침사추이역 등이 폐쇄되어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시리아인권관측소 "터키 공격으로 30만 명 이상 난민 발생"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한국오픈도어

시리아 북부지역에 대한 터키의 군사공격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약 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1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 라미 압둘 라만 소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습이 시작된 이래 민간이 30만 명 이상이 유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만 소장은 탈 아바드와 코바니, 하사케 지역에서 며칠 동안 새로운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서 강제 피난을 당한 이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난민 대부분이 안전한 지역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려고 했다. 일부는 과수원에서 잠을 자고 나머지는 긴급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는 40개 학교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터키군의 공습 이후 쿠르드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개전 이후 현재까지 쿠르드민병대(YPG)가 주축을 이룬 시리아민주군(SDF)에서 185명이 전사했으며, 친터키 반군연합 시리아국가군(SNA)에서 164명, 터키군에서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편, 터키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시리아 북부에서 진행되던 군사작전을 5일 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한국 순교자의 소리] 금주의 중보기도(10/21~10/27)

◇10/21 **우간다**: 이 나라 정부가 안정되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피난처로 계속 남아있도록.

◇10/22 **미얀마**: 버마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위해.

◇10/23 **아프가니스탄**: 라디오, TV, 디지털 매체 사역이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길 잃은 영혼들의 주의를 끌도록.

◇10/24 **케냐**: 이슬람에서 회심한 기독교인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도록.

◇10/25 **파키스탄**: 소수 언어 집단에 초점을 맞춘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

◇10/26 **방글라데시**: "제가 매일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기도해주세요." -최전방 사역자

◇10/27 **디왈리 시작**: 힌두교 축제 디왈리가 오늘 시작된다. 힌두교 신자들이 가짜 신들을 섬기는 어둠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도록.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은 핍박받는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들과 함께 지상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홈페이지 https://vomkorea.com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 한 교회만의 문제 아냐”

교회언론회 ‘행정부-사법부 다툼으로 교회가 피해 입어선 안 돼’

뒤늦게 사법부가 이런 결정 내린 것 매우 유감
원상 복구 공사시 교회 전체 등 안전 문제 심각
불법 저지른 것 아닌 행정부 허가로 건축 진행

사랑의교회.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성해 박사, 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최종 취소 판결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유감 논평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7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 2012년 소송이 시작돼 8년여를 끌어온 것으로, 그 동안 교회도 많은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랑의교회는 건축 허가 부서인 서울 서초구에 교회 신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것”이라며 “도로를 매입 확장하여 주민들의 이용에도 편리를 제공하고, 구청에도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일부 언론들은 교회가 무허가 건물이 되었고, 건물을 부수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등 매우 험한 보도를 하며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을 완공하였는데, 교회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지하 점용 부분을 부수고 원상 복구하는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의 보존과 교회 전체의 안전 문제 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의 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만으로 교회에만 피해를 강요한다면, 이는 어불근리(語不近理)”라며 “따라서 법리적 논거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지역 주민 9만 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며, 영리나 이익 집단이 아니라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좁은 국토에서 지하 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실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에 교회가 지하 땅을 이용하는데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상의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완성된 건축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론회는 “타종교에서는 오랜 동안 진행해온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내지 합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만들어 낸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라며 “이 문제점의 주체에 대해 한국 교계는 주시하고 있다. 이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행정부의 차후 처리를 지켜 볼 것이다. 만약 이것이 교회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 문제는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정부의 허가를 얻어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인데,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교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이라며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종교탄압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이어령 박사 “병 고쳐달라 기도 안해, 나의 기도는…”

이어령 박사

이어령 박사가 언론(조선일보 19일 보도)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그는 암에 걸렸지만 현재 항암치료는 받고 있지 않다. 이 박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 故 이민아 목사와,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담담히 고백했다.

이 박사는 “성경에는 나중 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다. 내 딸이 그랬다.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다.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태연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다”고 했다.

그는 “(딸이)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다. 3년 만에 법대 나오고 외롭게 애 키울 때, ‘아버지!’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다. 그 분이 하나님”이라며 “내가 못 해준 걸 신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 만 하겠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시작했다.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좇고 있다”고 했다.

이 박사는 또 “옛날엔 나는 약하니 욥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지금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한다. 역사적으로도 부활의 기적은 오로지 예수 한 분뿐이니까”라며 “나의 기도는 이것이다. ‘어느 날 문득 눈뜨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갈피를 넘기던 책, 내가 쓰던 차가운 컴퓨터… 그 일상에 둘러싸여 눈을 감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신은 생명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능력과 환경이 같아서 평등한 게 아니다. 다 다르고 유일하다는 게 평등”이라며 “햇빛만 받아 울창한 나무든 그늘 속에서 야윈 나무든 다 제 몫의 임무가 있는 유일한 생명이다. 그 유니크함이 놀라운 평등이다. 또 하나. 살아있는 것은 공평하게 다 죽는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설교목사 임명 철회하기로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수습안과 관련, 양측인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그리고 김수원 목사 측이 수습안의 의미와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는 17일 총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노회장과 명성교회 이종순 장로, 비대위원장이자 차기 노회장인 김수원 목사(태봉교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초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결의 수습안과 달리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고, 명성교회 측은 이후 김삼환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임명했다. 이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가 수습안을 어기고 미리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에 대해서도,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취임 후인 11월 3일경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한 수습안대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수습전권위는 이날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 측에 수습안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노회 정상화를 위한 세부사항들을 조율했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오후 1시 자체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명성교회 측인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와 명성교회 이종순 장로를 만나고, 이후 비대위 측 김수원 목사 등을 연이어 만난 후, 이들이 다 함께 모임 가운데 연석 간담회를 가졌다.

연석 간담회에서는 주로 노회 정상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 상당한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노회 전까지 남은 세부사항을 모두 조율하기로 하고 이날 모임을 마무리했다.

이대웅 기자

2019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곤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Faith Christ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3242 W. 8th Street #200., LA, CA 90005
Tel : (818)913-3115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가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 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는 년 뉴욕에 설립된 정회원 학교 입니다

등록마감일 년 월 일

등록상담전화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정원 명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 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차수업 년 월 일 월 월 일 금 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차수업 년 월 일 월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월 일 금 시간

학위수여식 년 월 일 ※ 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 213-272-6031

조금 더 멀리 보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깊이 보는 것과 함께, 멀리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깊이 보는 능력을 통찰력(洞察力)이라고 말합니다. 통찰력이란 근원부터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근원을 살필 수 있다면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통찰력이 깊이 보는 것이라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예견력(豫見力)이라고 말합니다. 예견(豫見)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느 정도 미리 짐작하는 것입니다. 예견(豫見)이란 한문으로 "미리" 예(豫)와 "볼" 견(見)의 합성어입니다. 예견이란 미리 보고, 미리 생각해 보고, 미리 추측해 보고, 미리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 주시지 않는 한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예견한다는 것은 예측(豫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은 미리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섭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금 더 멀리 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 충만을 통해 조금 더 멀리 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시(啓示)의 영이십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것을 드러내어 보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엡 1:17).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까닭에 누리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이미 주어진 것을 소홀히 대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가진 것을 잃게 되면 그것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아쉬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고(고전 2:12),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은혜로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앞날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장차 전개될 칠년 풍년과 칠년 흉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창 41:38). 또한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었기에 흉년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바로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조금 더 멀리 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 주셨습니다(단 2:17-23).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은밀한 일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밀한 비밀을 보여 주시고, 미리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셋째, 말씀 묵상을 통해 조금 더 멀리 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 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 조금 더 멀리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종이 되어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그 사건만 보면 비극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전체 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 비극적인 사건이 요셉을 복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극적인 사건을 선용하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씻어 주신 제자들의 발은 예수님을 배신할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멀리 보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예수님이 장차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 고난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중에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장 25~26)

지난 토요일 아침 일찍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처음 모여 가족만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 가득히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을 구세주로 믿은 어머니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다는 확신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전 어머니를 만나서 하늘의 믿음과 축복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였는지를 가슴 깊이 깨달으며 감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 천국의 믿음에서 뿐만이 아니라 장례일정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갔던 형님 목사님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고 저녁식사를 마쳤을 때 임종의 전화를 받았는데, 만약 1시간만 일찍 전화를 받았어도 중요한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었을 것이었습니다.

또 누님과 매형은 어머님의 임종 몇 시간 후 교회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성지순례단의 단장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어 있어서 만약 출발한 후였다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을 뻔하였습니다.

또 저희 식구 6명도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일정들 가운데 있었지만 정확하게 금요일 오후까지 다 모일 수 있어서 토요일부터 시작된 3일간의 장례식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장의 예약이나 납골당 메모리얼 파크의 준비 등 모든 일들이 마치 누가 미리 알고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순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도 형님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과 누님 교회 분들, 특히 대만집회 후 바쁜 토요일인데도 직접 오셔서 인도해주신 이영훈 목사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아는 분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시고 조화를 보내주시고 위로해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손이 많이 필요한 장례식을 도와주신 분들의 섬김도 너무나 따뜻했고 풍성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한국식 조문객들의 안내부터 식사 봉사 등 작은 일, 궂은 일,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던 형님이 사역하는 '함께 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휴가와 월차를 내면서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또 국제 성시화대회와 겸하여 한국 중국 등을 다녀오신지 하루 밖에안 되었음에도 오직 장례식 참석을 위해 미국에서부터 오셔서 삼일 동안 곁에서 함께 지켜주시고 섬겨주신 최웅진 장로님과 휴가로 개인 일을 보러 한국에 왔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만났음에도 완벽하게 감당해주신 양주열 전도사님의 활약은 함께 했던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본이 되고 감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격려해주시고, 조화까지 보내주신 우리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하고 약한 자도 부활의 큰 믿음으로 어머니의 천국 환송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도대성회'의 순서까지 끝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LA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목사님들과 장로님을 보는 순간, 미국을 출발할 때 한 집사님이 제게 용기를 주려고 '이제 목사님도 고아가 되셨습니다.'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글로 먼저 전해드리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의 믿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찾아요!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비영리 지원단체를 찾습니다

오픈청지기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는
한인사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자체 프로그램 활성화**를 적극 돕습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은 미주 지역사회 곳곳의 건강과 복지향상 보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픈청지기재단과 사랑/나눔을 함께 하실 **기독교 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들을 모집합니다
지원 신청서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openstewardship.com

접수기간
2019년 11월 22일까지

발표일자
2020년 2월 28일(금)

최종 선정된 지원단체명은 오픈청지기재단 웹사이트,
신문광고 및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 및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오픈청지기재단 | 213-593-4885
1000 Wilshire Blvd., #500 LA, CA 90017

츠빙글리의 성경관과 스위스 종교개혁의 특징들(2)

김재성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김재성 박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2) 성경의 명료성과 확실성

1522년 9월 6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과 확실성』이라는 설교를 출판했다. 이 설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과 능력이 핵심 내용으로 강조되어있다. 츠빙글리는 서론에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는 명백한 선언을 하였다.

이 설교의 첫 부분에서 츠빙글리는 외형적으로 기록된 말씀(written)과 목회자의 선포를 통해서 참되게 듣는 (spoken)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효력을 발휘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효과를 발휘했던 사례들을 열거하였다.

츠빙글리는 단순하게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풀이하였다. 루터는 성경의 두 가지 명료성을 언급했는데, 하나는 성경 본문 안에서 명료성이 있으며,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적인 명료성을 말하였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이해에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고백하도록 빛을 통과시켜주시어서, 그 말씀의 확실성을 알게 한다"고 강조했다. 명쾌하게 성도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을 발휘하게 되며, 탁월한 적용에까지 효력을 끼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시의 적절하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어서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신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theodidacti)을 받아야만 한다고 츠빙글리는 강조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는 역설했는데, 훗날 칼빈이 제시한 것과 거의 흡사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처럼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열두 가지의 사례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츠빙글리는 열거하였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츠빙글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했다는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13절과 요한1서 2장 27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는 확신에 기초하여서 목회사역을 전개하였고, 강해 설교와 저술에 힘을 기울였다. 1519년부터 1531년까지 12년 동안에 연속적으로 거의 모든 성경에 대해서 독일어로 강해설교를 지속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모든 예배에서 오직 라틴어 성경만을 읽도록 했고, 예배절차와 순서도 라틴어로 인도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독일어를 쓰는 시민들에게 모국어로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였고, 가능한 한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을 따라 윤리적인 삶을 확산시키도록 준비시켰다. 또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자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등 성경 원어를 가르쳤다.

3) 성경만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

스위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근간으로 성취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처음에는 츠빙글리가 선도하였고, 외콜람파디우스, 파렐, 불링거, 칼빈, 삐에르 비레, 테오도르 베자가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성경적인 제도와 윤리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스위스 동맹이 강화되면서, 취리히에서 츠빙글리가 선포한 복음이 주변에 확산되었다. 베른과 바젤을 거쳐서 마침내 제네바에서 칼빈이 혁신적으로 성취하였다. 스위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시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교회제도와 예배를 크게 변화시켰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교황과 종교회의에 더 의존하였다. 인간의 권위를 더 높이고 있었기에, 루터와 칼빈은 교황이야말로 거짓 교사라고 정면에서 비판하였다. 인문주의에서 토대를 닦은 후에,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 번역성경이 아니라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새로운 신학사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을 배출한 대학교에서는 대부분 15세기 르네상스 인문주의라는 토양이 구축되어 있었다. 성경에 대한 연구에서 획기적으로 중세와는 다른 흐름을 만들었지만, 이들 두 가지 흐름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던 신학적인 사상들은 철학적이고 인식론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반 시민들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려는 대안이자 위로였다. 성경의 내용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고민하던 문제들을 다룬 것이고, 일상생활의 고뇌와 아픔을 해결해 주는 해답들이다. 믿음에 의한 칭의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강조, 섭리와 예정, 예배와 설교를 중요시하는 것들은 모두 다 생활의 현장에서 일반 성도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혼란을 겪던 것들이었다.

인문주의 언어학자들이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스콜라주의와 논쟁을 시작하였고, 이것을 계승한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 신학을 새롭게 제시했다. 인문주의자들은 "근본으로 돌아가라" (ad fontes)라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본문의 정확한 번역에 집중하였다가, 점차 그 의미와 해석으로 확산하였다. 고전 연구를 중요시하는 기독교 인문주의(Christian humanism)자들로 확산되어지면서,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구호에 시인, 문필가, 화가, 건축가, 어학자, 고고학자, 철학자들이 공감했다. 지성적인 기독교 철학, 윤리와 도덕적 갱신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성장한 후에, 중세 로마 스콜라주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기독교 신학사상을 정착시켰다. 15세기에 이탈리아로부터 확산되어나간 기독교 인문주의는 신학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원서들을 읽고서 수사학을 발전시키는 탁월한 어학자들이 배출되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정신은 유럽인들에게 익숙했던 라틴어를 넘어서서, 거의 칠백 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고전 언어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 등 인문주의 학자들과 초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준 많은 신학자는 로마 가톨릭 신부 로렌조 발라(Lorenzo Valla, 1406-1457)였다. 루터가 최초로 독일어 성경번역을 시도한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결국 그가 신구약 완역본을 출간해냈다. 그보다 한 세기 앞서서 살았던 로렌조 발라는 정확한 성경본문 이해를 촉구하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여 (살후 2:8) 루터에게 확신을 주었으나, 그의 공헌은 충분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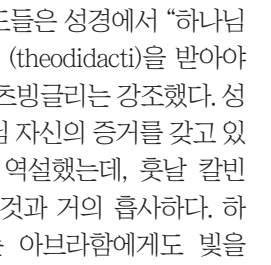
츠빙글리가 선도적으로 앞서 전개한 성경중심의 교회 개혁은 그가 서거한 1531년 이후로 스위스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졌다. 우리는 츠빙글리와 그의 성경적 개혁사상의 확고한 정립이 이뤄지기까지, 엄청난 격동과 갈등의 시대를 통과했음에도 주목해야만 한다. 결코 쉽지 않았다. 츠빙글리를 비롯하여 외콜람파디우스, 불링거, 칼빈 등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격동기에 최전선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교회와 국가를 개혁하는 영향을 남겼다.

인간 사회의 역사와 그 가운데 흐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유지되고 움직인다. 때로는 기독교 교회나 신학자들도 혼란에 빠져서 갈등과 대립에서 단 한 치의 개선을 이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한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거나 파악하지 못했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오묘한 뜻을 간직하고 펼치도록 하셨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곁에 계시며 힘을 주셨고,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 내셨다고 회고하였는데 (딤후 4:17), 츠빙글리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생애의 업적과 시련을 동시에 맛보았다. (계속)

종교개혁가 츠빙글리를의 기념비 ⓒ김재성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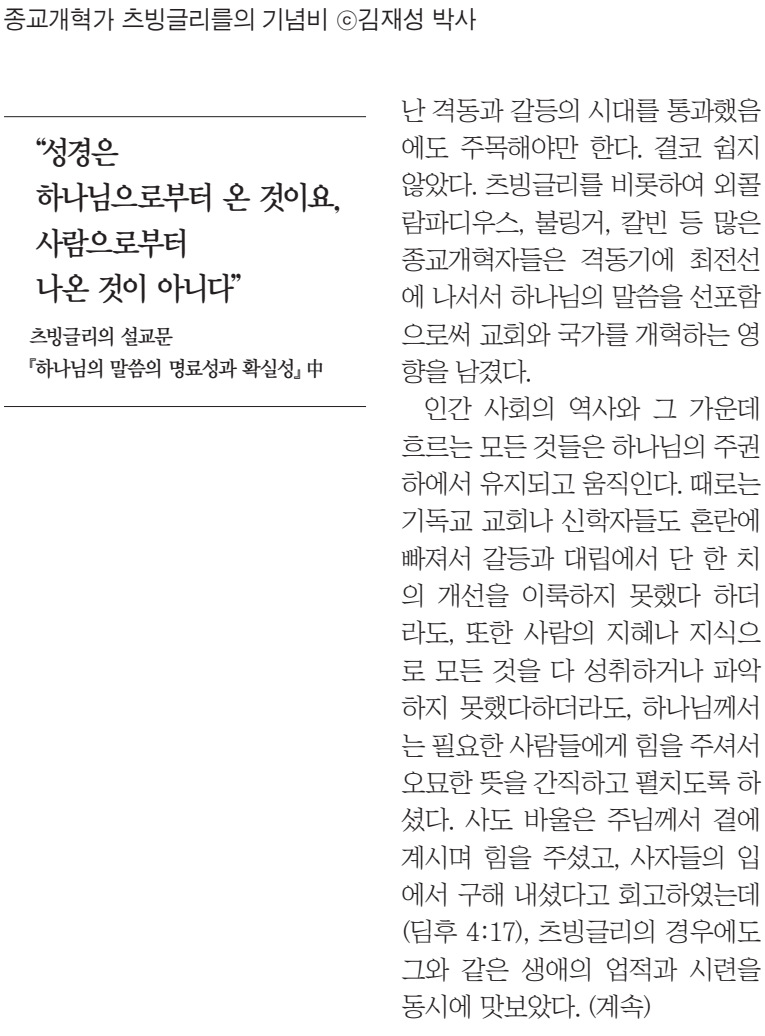
>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 츠빙글리의 설교문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과 확실성』 中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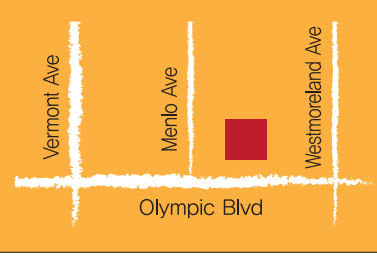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가이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 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 맞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운전하기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한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기독일보 신문사가 주최하는 여행이라 믿음이 가고 안전한 여행이었습니다.
– 여행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

11월

발보아 식물원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기차 타고 떠나보자~
샌디에고 여행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샌클라멘테 피어, 럭시 뷔페, 발보아 팍

11/9(토)당일
$99

천 오백만불 보험가입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Tel.213.434.1170
Tel.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la@gmail.com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어른도 상처받는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익어가는 사람들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김혜남, 박종석
포르체 | 264쪽

불현 듯
우울하고,
일부러
불행한 당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읽는
치유의 시간

어른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상처 받은 마음은
그대로고
지치고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현대인을 위한
치유의 심리학 책이다.

우울한 현대인을 위한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최근 1년 동안 개업한 정신과 의사가 서울에만 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기존에 있던 병원까지 합치면 700군데가 넘는 숫자다. 하루 30명의 사람이 정신과를 찾고 있다.

대다수 현대인들은 자신이 행복보다는 불행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자가 평가한 결과,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지수'는 평균 68.1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신적 고통 및 심리적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은 없다. 증상과 관계없이 대부분 '휴식'과 '운동', '취미생활'을 통해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증상을 이겨내려 노력한다.

우리는 쉽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 얼마 전 우리가 잘 아는 한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보았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낸 모습이 좋아 보였다.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괜찮아지는 것은 없다. 치료되지 못한 상처는 흉터로 남게 된다.

우울한 감정, 모두 잘못된 것은 아냐
우리 삶이 가진 다양한 얼굴의 하나
조금 더 깊고 오래 앓는 우울이 문제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인 김혜남과 박종석이 공저한 책이다. 저자 김혜남은 베스트셀러 〈서른 살이 심리학에 묻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2001년 43살의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정신과 의사의 파킨슨병은 충격이었다. 파킨슨병은 대표적 신경퇴행성 질환 중 하나다. 손 떨림, 근육 경직, 자세 불안정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녀는 몰려오는 우울한 감정을 잘 이겨내며 18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고, 아이를 키우고, 여러 권의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에서 현대인이 겪고 있는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울한 감정은 대단한 병이 아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다.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나이가 들어 변해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노력했던 일의 결과가 원하던 대로 나오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우울은 다양하다. 이런 우울한 감정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저자는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울은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얼굴 중의 하나다. 이런 우울은 인생을 살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좌절에 직면했을 때 이를 내적으로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울은 고통스럽지만 정상적인 우울이다."

우울한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우울이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울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한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정성껏 어루만져 주어야 할 우울은 이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오래 앓는 우울이다. 우울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자신의 인생에서 희망이 사라져 버린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우울, 이를 두고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한다."

우울증은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인류를 괴롭히는 무서운 질병 10가지 중 네 번째를 차지한다고 한다. 게다가 우울증은 전체 인구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는 질병이다.

우울증에 걸리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우울증은 제대로 치료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 3개월 안에 호전된다고 한다.

"제아무리 심각한 우울증이라도 그래 봤자 병일뿐이다. 증세는 심각하지만 빠른 진단과 바른 치료만 이루어진다면 결국 회복이 되며, 완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울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는 밝은 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희망의 끈만 놓지 않으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우울증, 막힌 동굴? 출구 있는 터널!
치료하면 되지만, 못하면 깊은 상처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저자는 우울증은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이라고 말한다. 우울증도 하나의 병일 뿐이다. 병은 치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거부감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폐렴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듯이, 우울증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울증은 '마음의 독감'이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부정적인 생각이 오랫동안 형성되면 바꾸기 힘들다. 물길이 한 곳으로 흘러들어 강줄기가 형성되는 것과 같다. 한번 강줄기가 형성되면 다음 물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강줄기를 따라 흐른다. 이 흐름을 바꾸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정적인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비록 세상에는 힘들고 실망스러운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선과 행복을 향해 나아가리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바로 긍정성이다."

쇼펜하우어는 "우울한 사람은 비극을, 다혈질의 사람은 희극을, 침착한 사람은 무의미한 것만을 본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만큼 무엇을 보려고 노력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는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 안경의 색이 어두울 때 세상은 전부 어둡고 칙칙하게 보일 것이며, 안경의 색이 분홍빛이면 세상은 분홍색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부정적인 생각의 물길이 긍정적 생각의 물길로 조금씩 바뀌게 된다.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이 세상을 분홍색으로 물들일 수 있다.

우울의 반대, 행복 아닌 '생동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살아냄'
하루하루 살아내면, 결국 열매가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우울증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 질병에 관해 이야기한다. 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무기력감 등 마음의 가벼운 병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전해준다.

저자는 우울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라 '생동감'이라고 표현했다. 살아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울을 이기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살아냄'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답답한 시간을 살아냈다. 요셉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냈다. 그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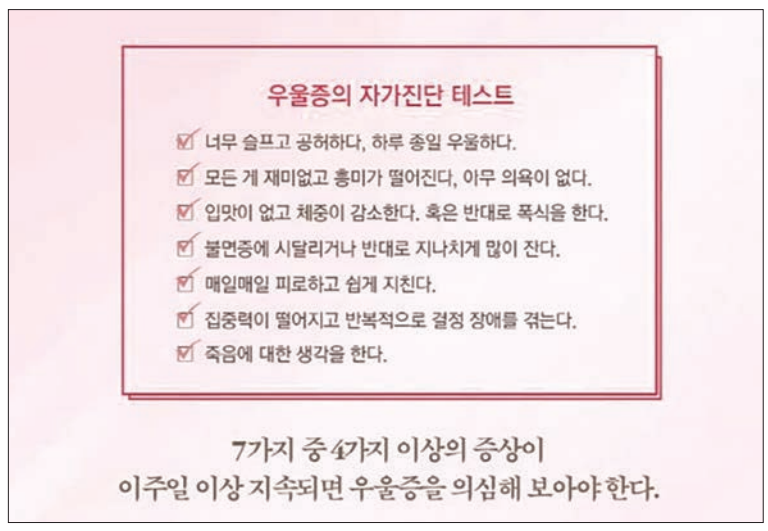
약속의 특징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오늘 당장 보이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하루를 살아낸 만큼 그 약속에 우리는 한 발자국 더 전진한다.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면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온다.

노사연의 노래 '바램'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고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멋진 어른은 그 상처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익어가는 사람들이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기를 소망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재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 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새생명비전교회 창립 10주년

새생명비전교회 창립10주년 기념부흥회

주제: 새생명 비전 공동체

11/8(금) 오후 7:30: **새생명** (요 3:1-16)
11/9(토) 새벽 5:10: **뜻대로 삶** (살전 5:16-28)
오후 7:30: **성숙** (요일 2:12-17)
11/10(주) 1-3부 예배: **비전** (눅 15:25-32)

2019 10th Anniversary Revival Meeting

2019년 11월 8-10일

NLVC Vision Center
4226 Verdant St. LA, CA 90039

www.nlvc.org

강사: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창립 (원로목사)
지구촌 목회리더십연구소 대표
한미준, 국제 코스타 창립

NLVC 새생명비전교회
New Life Vision Church